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351

JCCT 2020-2-43

##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및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 Convergence of the Factors Influencing of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and Self-Resilience o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송환\*, 김혜숙\*\*

Song Hwan\*, Kim Hye Sook\*\*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학생들은 미래 간호사로서 재난의 최전선에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호학생들의 위험에 대한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및 실천력이 중요하다.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고 재난관련 교육, 재난관련 태도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간호학생들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 부분에 초점을 맞춘 재난관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재난관련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적 실습교육과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재난인식, 자아탄력성, 재난관련 태도, 재난간호 핵심수행 능력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of convergence effect of the University of Nursing o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by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 and Self-Resilience. The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 and practical ability to prepare for the dangers of nursing students are important in that students as future nurses must perform their duties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at the forefront of disaster.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was Self-Resiliency, which was identified in order of disaster-related education and Disaster Attitude. In order to foster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among nursing student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a convergence hands-on training program and a program for disaster-related education, which can be experienced through a variety of disaster-related positive and active attitudes focusing on the self-resiliency section.

**Key words** : Disaster Perception, Self-Resilience, Disaster Attitude,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통계청의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낮은 수준의 재난과 안전의식을 갖고 있음을 확

인하고 사회와 국민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파악하였다.[1]

재난간호란 재난으로 인해 야기된 생명과 건강에 대

\*정회원, 초당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부교수(제1저자)

\*\*정회원,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12월 08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02일

Received: December 08, 2019 / Revised: December 23, 2019

Accepted: January 02, 2020

\*Corresponding Author: khs5@cdu.ac.kr

Dept. of Nursing, Chodang Univ, Korea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난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간호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역량이란 지식, 기술, 판단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수행 능력을 말한다.[2] 그러므로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들에게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재난 대비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능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전에 수행하는 모든 사전행동과 계획, 노력을 의미하며[3],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은 재난 정책에 변혁을 가져왔고,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의료진에게도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자성을 촉구하게 되었다.[4] 간호는 생명존중 태도를 기본 소명으로 신체·정신·영적·사회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 행위는 곧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수반한다.[5]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재난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기 위해 재난의 단계별 간호를 제공[6]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간호사는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획득하고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자신이 속한 의료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복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7]. 모든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분야와 상관없이 재난에 대비 및 대응해야 한다.[7]

WHO나 ICN 등의 국제기구에서 간호학부 과정의 졸업생들이 재난구조 활동에 대해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시한 것은 재난간호가 간호학부 필수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8] 그러므로 재난관리자에 해당하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재난관리 활동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재난관리에 임해야 한다.

재난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할 때 간호사는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간주되며 임상과 지역사회간호실무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식과 기술에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접목한 새로운 역할확대가 기대된다.[9] 따라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기반이 된 재난간호 수행능력이 중요하고[10], 대응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의 재난간호 현장에서 자아 통제가 필요한 자아탄력성은 업무수행에 중요한 개인적 요소([11]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재난관련 건강관리자인 간호대학생의 재난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사되어야 한다[12]. 간호학생이 개인, 가족, 간호교육과정 속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간호학생들이 재난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13]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과 태도, 자아탄력성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관련 교육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및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재난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재난 인식과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간호대학생의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하는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였다. 총 265명의 학생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지만 불충분한 응답을 한 9명을 제외한 256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을 근거로 G\*Power프로그램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4개로 산정한 결과 표본 수 119명이 필요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 256명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재난인식

재난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재난손해에 대한 걱정정도, 재난 발생 가능성 인식정도,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정도,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 재난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 2) 재난관련 태도

재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

로 재난에 대한 태도를 측정된 [1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관련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5]의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2$ 였다.

####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16]이 번안한 한국형 코너-데이비슨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4)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6)에서 발표한 재해간호 수행능력(ICN Frame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과 2003년 Wisconsin Health Alert Network에서 개발한 44개 문항의 Emergency Preparedness Questionnaire(EPIQ)[17]를 기반으로 [18]이 개발한 도구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였다.

### 3.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기를 원할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거부, 중단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및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은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학생이 214명(83.6%), 남학생이 42명(16.4%)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62명(63.3%), 기독교가 61명(23.8%), 가톨릭 22명(8.6%), 불교가 11명(4.3%) 순 이었다. 과제 수행 시 팀 역할 중 팀원 역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0명(82.0%), 리더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6명(61.2%)이었다. 향후 취업 희망분야는 의료기관이 182명(71.1%), 공무원 56명(21.9%), 해외취업이나 해외봉사는 11명(4.3%), 보건교사 7명(2.7%)이었다. 재난관련 특성은 재난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6명(53.1%), 재난관련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1명(43.4),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5명(56.6%)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6)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2(16.4)
	Female	214(83.6)
Religion	Christianity	61(23.8)
	Buddhism	11( 4.3)
	Catholicism	22( 8.6)
	None	162(63.3)
Team role part	Leader	46(18.0)
	Team member	210(82.0)
Hope field after graduation	Hospital	182(71.1)
	Public officer	56(21.9)
	Health teacher	7( 2.7)
	Overseas service and employment	11( 4.3)
Disaster education	Yes	136(53.1)
	No	120(46.9)
Disaster experience	Yes	111(43.4)
	No	145(56.6)

#### 2.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는 표 2와 같다.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는 평균 3.70±.54, 재난인식 정도는 평균 3.74±.75, 재난관련 태도는 평균 3.64±.59, 자아탄력성은 평균 3.75±.42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

Table 2. Mean of Study Variables (N=256)

Variables	Mean±SD
Disaster Perception	3.74±.75
Disaster Attitude	3.64±.59
Self-resilience	3.75±.42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3.70±.54

#### 3. 일반적 특성 및 재난관련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차이

일반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재난인식은 재난교육(t=1.195, p<.05), 재난관련 태도는 종교(F=2.617, p<.05), 자아탄력성은 성별(t=3.922, p<.05)과 향후 취업 희망분야(F=4.104, p<.01),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은 향후 취업 희망분야(F=1.91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과제 수행 시 팀 역할과 재난관련 경험유무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재난인식 정도는 재난 교육을 받은 경우( $t=1.195$ ,  $p<.05$ ), 재난관련 태도는 가톨릭을 가지고 있는 경우( $F=2.617$ ,  $p<.05$ ), 자아탄력성은 남학생( $t=3.922$ ,  $p<.05$ )과 해외 취업이나 해외봉사를 원하는 경우( $F=4.104$ ,  $p<.01$ ),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은 보건교사를 원하는 경우( $F=1.914$ ,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간호학생의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r=.277$ ,  $p<.001$ )와 재난관련 태도와 자아탄력성( $r=.125$ ,  $p<.05$ ) 및 자아탄력성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r=.119$ ,  $p<.05$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256)

Variables	DP	DA	SR	CCDN
	r(p)			
DP	1			
DA	.277*** ( $p<.001$ )	1		
SR	-.025 (.687)	.125* (.045)	1	
CCDN	.029 (.646)	.052 (.404)	.119* (.048)	1

DP: Disaster Perception, DA:Disaster Attitude  
 SR: Self-resilience, CCD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 5.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난 간호 대비 대응역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간호교육 여부, 재난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수 중 성별, 재난교육과 재난경험 유무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1.65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계수(VIF)

는 1.675-1.032로 10을 넘지 않아 다공선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5와 같이 자아탄력성( $\beta=.180$ ,  $p=.005$ ), 재난관련 태도( $\beta=-.163$ ,  $p=.011$ ), 재난경험( $\beta=.140$ ,  $p=.026$ ) 순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의 설명력은 6.5%(Adjusted  $R^2=.065$ )이었다[표 5].

## IV. 논의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재난간호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직접 재난을 당하거나 목격하여 재난경험을 한 경우 연구대상자의 43.4%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재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1%로 크고 작은 다수의 재난사건의 발생으로 재난에 대한 교육이 많이 늘었지만, 재난교육을 접하지 않은 경우도 46.9%로 나타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재난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재난을 인지하고 교육에 참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재난인식은 3.74점, 재난관련 태도는 3.70점 이었다. 이는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9]의 재난인식 4.07점 점수와 [20]의 4.10점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인근에서 발생하였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과 2015년 감염병 메르스 확산 사건 등으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인식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며, 낮은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정도로 보아 더 많은 재난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재난인식과 재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3.64점으로 나타났다. [19]의 3.72점과 [20]의 3.89점보다 낮게 나왔으며, [21]의 연구에서 3.35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여 불안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인 참여,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나 시련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며[11], 특히 자아통제가 필요한 응급 재난간호 현장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하고[1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요소를 감안한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는 3.70점으로 평균 이상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19]의 2.89점, [22]의 2.76점과 [23]의 2.78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년 전에 비해 최근 재난관련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 사이 학생들의 기본 인식 및 대응역량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되나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에서 자아탄력성은 남학생과 해외 취업이나 해외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곳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향후 희망직업 분야를 안정적이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재난관련 정보와 특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에 따른 재난교육과 예측되지 않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11]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24].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은 향후 희망직업군에서 보건교사를 원하는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자로서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더 인식한 것으로 자료되거나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간호학생의 재난인식과 재난관련 태도와 재난관련 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과 재난인식,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19], [25], [21], [22]의 재난인식이 높으면 핵심수행능력이 높아진다고 제시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최근 많은 재난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므로 학생들은 이를 개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 인식 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는 특히 학생들이 재난간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지역사회 자원이나 가상 대비훈련에 대한 지식 부족, 재난상황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음 등을 지적하였는데, [26]의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서 기본간호수행 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기본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22],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은 교육과정 중 따로 재난간호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취업을 위해 학생시절에 심폐소생술(BLS Provider)의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있거나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핵심기본간호술기 20개 중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항목이 있어 각 학교마다 실습을 통해 훈련하여 응급처치에 대해 배웠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훈련과 실습을 통해 미래 간호사로서 필요한 재난에 대한 대비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으로 재난태도, 재난교육 여부, 자아탄력성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명력이 다소 낮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19]는 난대비도, 학년, 임상실습만족도, 자아탄력성, 재난관련 교육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35.8%이었고, [22]의 연구에서는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대비도, 재난교육요구도, 성적, 재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beta = -.11, p = .035$ )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 향상시키기 위해서 [27]은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상훈련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고, [28]도 간호학생의 재난 대비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나 가상 시뮬레이션, 표준화 환자 등을 이용한 통합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과 같이 미래 잠재인력으로 재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재난관련 실습교육은 필수적[29-30]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들의 재난 간호 대비 대응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 부분에 초점을 맞

준 재난관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재난관련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적 실습교육과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 인식과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이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고 재난관련 교육, 재난관련 태도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들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 부분에 초점을 맞춘 재난관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재난관련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적 실습교육과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4 social investigation report[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cited 2014 December 2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2] A. Jennings-Sanders, N. Frisch and S. Wi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Disaster Management & Response*, 3(3), 80-85, 2005.  
DOI : 10.1016/j.dmr.2005.04.001
- [3] T. G. Veenema. *Disaster nursing and Emergency preparedness fo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errorism*. N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7.
- [4] M. R. Yu et al. *Disaster management for health professionals*. Paju-si: SoomoonSa, 2012.
- [5] M.H. Kim, Nursing Ethics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59-66, 2019.  
DOI : 10.17703/JCCT.2019.5.1.59.
- [6] O. N. Hwang, Y. S. Kwon, and B. J. Park. *Emergency and disaster nursing*, Seoul: Hyunmoon Publishing, 2015.
- [7] J. C. Langan and D. C. James. *Preparing nurses for disaster management*.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4.
- [8] K. Usher and L. Mayner. Disaster nursing: A descriptive survey of Australian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a. *Australasian Emergency Nursing Journal*, 14(2), 75-80, 2011.  
DOI : 10.1016/j.aenj.2011.02.005
- [9] O. C. Lee , K. C. Cho , G. S. Shin and H. C. Baek. A Historical review of disaster nursing activities in Korea(1945-200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4(2), 106-121, 2008.
- [10] Y. J. Park and E. J. Lee. A study on ego-resilience, disaster experience and core competencies among emergency room nur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1), 67-79, 2015.
- [11] J. Block and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DOI : 10.1037//0022-3514.70.2.349
- [12] Y. R. Lee, S. J. Han, and C. M. Cho.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Perceived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4), 237-242, 2016.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237>
- [13] C. K. Schmidt, J. M. Davis, J. L. Sansers, L. A. Chapman, M. C. Cisco and A. R. Hady. Exploring Nursing students' lever of preparedness for disaster response.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32(6), 380-384. 2011.  
DOI : 10.5480/1536-5026-32.6.380
- [14] C. H. Woo, J. Y. Yoo and J. Y. Park. Experienc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11), 19-35, 2015.  
DOI : 10.14251/krcem.2015.11.11.19
- [15] Ibrahim, F. A. A. Nurses' knowledge, attitudes, practices and familiarity regarding disaster and emergency preparedness - Saudi Arabia. *Americ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3 (2), 18-25, 2014.  
DOI : 0.11648/j.ajns.20140302.12.
- [16] H. 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2010.  
DOI : 10.4306/pi.2010.7.2.109
- [17] R. Wisniewski, G. Dennik-Champion, and J. W. Peltier. Emergency Preparedness Competencies: assessing Nurses' Educational needs. *J Nurs*

- Adm*, 34, 475-480, 2004.
- [18] J. Y. Noh. *Nurses'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 Sei University, Seoul, 2010.
- [19] S. A. Yang.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39-51,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3.039>
- [20] J. E. Park. A Convergence Study o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38-46,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1.038>
- [21] J. Hur & H. J. Park. Nursing students' Perception,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and Ego Resil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8), 121-138, 2015.
- [22] H. J Kim. A Study on Disaster Preparedness,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447-7455, 2015.  
DOI : 10.5762/kais.2015.16.11.7447
- [23] E. K. Ahn and S. K. Kim.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6), 257-267, 2013.
- [24] K. Tusaie and J. Dayer. Resilience: A Historical Review of the Construct. *Holistic Nursing practice*, 18(1), 3-8, 2004.  
DOI : 10.1097/00004650-200401000-00002
- [25] D. C. Uhm, Y. I. Park and H. J. Oh. Disaster Preparation of Visiting in Public Health Cent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40-249, 2016.  
DOI : 10.5977/jkasne.2016.22.2.240
- [26] J. J. Yang.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443-449, 201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443>
- [27] S. Alim, M. Kawabata and M. Nakazawa. Evaluation of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and disaster drill for nursing students. *Nurses Education Today*, 35(1), 25-31, 2015.
- [28] M. M. Jose and C. Dufrene. Educational competencies and technologies for disaster preparedness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34(4), 543-551, 2013.  
DOI : 10.1016/j.nedt.2013.07.021
- [29] K. H. Kang, D. C. Uhm and E. S. Nam. A Study on Disaster Experience and Prepared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424-435, 2012.  
DOI : 10.5977/jkasne.2012.18.3.424
- [30] J. S. Kim, J. H. Kong, S. N. Choi, S. S. Kim, and E. Y. Jung. Development and Effect of Simulation-Based Disaster Nursing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7(1), 31-43, 2019.  
<https://doi.org/10.17333/JKSSN.2019.7.1.3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관련 태도, 자아탄력성과 재난간호 대응역량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 Self-resilience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			Self-resilience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M	±SD	t or F(p)	M	±SD	t or F(p)	M	±SD	t or F(p)	M	±SD	t or F(p)
Gender	Male	42	3.80	±.72	1.310 (.253)	3.53	±.57	.867 (.353)	3.83	±.49	3.922* (.049)	3.63	±.49	1.128 (.289)
	Female	214	3.72	±.76		3.66	±.60		3.72	±.41		3.71	±.55	
Religion	Christianity <sup>a</sup>	61	3.54	±.64	1.982 (.117)	3.56	±.78	2.617* (.049) c>a,b,d	3.75	±.44	.430 (.732)	3.68	±.52	.398 (.754)
	Buddhism <sup>b</sup>	11	3.58	±.53		3.52	±.78		3.66	±.36		3.57	±.44	
	Catholicism <sup>c</sup>	22	3.90	±.54		4.02	±.61		3.82	±.35		3.79	±.59	
	None <sup>d</sup>	162	3.64	±.58		3.78	±.52		3.73	±.43		3.70	±.56	
Team role part	Leader	46	3.53	±.77	-2.066 (.040)	3.60	±.75	.466 (.496)	3.71	±.46	.332 (.565)	3.64	±.57	.377 (.540)
	Team member	210	3.78	±.74		3.65	±.60		3.75	±.42		3.71	±.53	
Hope field after graduation	Hospital <sup>a</sup>	182	3.73	±.71	.776 (.541)	3.65	±.58	.181 (.948)	3.74	±.52	4.104* (.003) d>a,b,c	3.66	±.54	1.914* (.049) c>a,b,d
	Public officer <sup>b</sup>	56	3.57	±.73		3.57	±.58		3.70	±.54		3.79	±.59	
	Health teacher <sup>c</sup>	8	3.99	±.98		3.99	±.50		3.73	±.53		4.02	±.44	
	Overseas service and employment <sup>d</sup>	10	3.65	±.68		3.65	±.91		4.06	±.42		3.78	±.40	
Disaster education	Yes	136	3.79	±.54	1.195* (.026)	3.69	±.58	1.628 (.069)	3.89	±.43	1.679 (.052)	3.69	±.54	-.151 (.854)
	No	120	3.67	±.49		3.57	±.60		3.75	±.42		3.70	±.55	
Disaster experience	Yes	111	3.81	±.75	1.376 (.928)	3.61	±.61	-.651 (.676)	3.76	±.41	.717 (.429)	3.62	±.54	-1.964 (.702)
	No	145	3.68	±.75		3.64	±.58		3.72	±.44		3.75	±.49	

DP: Disaster perception, DA: Disaster attitude  
 SR: Self-resilience, CCD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표 5.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Table 5.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N=256)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 <sup>2</sup>	R <sup>2</sup>	F	p
(Constant)	2.773	.454		6.115	<.001	.065	.047	3.51	.004
Disaster Perception	.034	.045	.047	.769	.442				
Disaster Attitude	-.130	.051	-.163	-2.553	.011				
Self-resilience	.231	.082	.180	2.817	.005				
Gender	.133	.092	.090	1.145	.150				
Disaster education	.154	.069	.140	2.247	.026				